가을 스크린 최강희식 로맨스에 빠져봐

꼼꼼하지만 빈틈투성이인 신인 만화가 이선균
초짜 스토리작가 최강희
그들의 로맨스는…

〈불량남녀〉

〈조금만 더 가까이〉

〈시라노:연애조작단〉

‘시라노:연애조작단’ 시작으로 다양한 멜로 영화 열풍
김종관 감독 첫 장편영화 ‘조금만 더 가까이’ 내달 개봉
12월 개봉 공유·임수정 주연 ‘김종욱 찾기’ 벌써부터 기대

‘멜로 영화가 돌아온다.’

한 때 충무로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르였던 멜로영화는 최근 남자들이 주연을 맡은 ‘센 영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사라졌었다.

올 추석 시즌에 상영된 ‘시라노 : 연애 조작단’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로맨틱 코미디 등 다양한 멜로 영화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충무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는 ‘김종욱 찾기’다.

이 작품은 인도 여행에서 처음 만난 첫사랑 김종욱을 잊지 못해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에 ‘김종욱 찾기’를 의뢰한 여주인공과 이 첫사랑을 찾아주려는 남자 사이의 또 다른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온 임수정이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행복’, ‘장화 홍련’ 등 다채로운 영화에 출연했지만 로맨틱 코미디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한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 만인의 연인으로 떠오른 공유가 군 제대 후 첫 작품으로 임수정과 호흡을 맞췄다.

메가폰은 뮤지컬을 연출하고 직접 대본을 썼던 장유정이 잡았다. 조선대 출신인 장유정은 ‘김종욱 찾기’ 뿐 아니라 ‘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형제는 용감했다’ 등 뮤지컬 화제작을 만든 대표적 연출자다.

또 다른 로맨틱 코미디 ‘쩨쩨한 로맨스’도 기대작이다.

‘쩨쩨한 로맨스’는 꼼꼼하지만 빈틈투성이인 신인 만화가와 아는 척을 많이 하지만 ‘쩨쩨한’ 이야기를 주로 쓰는 섹스 칼럼니스트의 발칙한 연애담을 코믹하게 담아낸 영화다.

‘달콤, 살벌한 연인’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최강희와 드라마 ‘파스타’, 영화 ‘파주’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선균이 연인으로 출연한다. 두 사람은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함께 연기한 적이 있어 기대감이 더욱 높다.

여기에 최근 ‘방자전’을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류현경은 신인 만화가로 출연하는 이선균을 유혹하는 최강희의 친구로 출연한다. 신인 김정훈 감독의 충무로 장편 데뷔작이다.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도 대기중이다.

‘불량남녀’은 신용불량자인 강력계 형사와 카드사 채권팀의 여사원이 티격태격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임창정과 ‘극장전’ 의 엄지원이 함께 출연한다.

‘폴라로이드 작동법’ 등을 통해 인디영화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종관 감독의 첫번째 장편영화도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독립영화계에서 다양한 멜로물을 찍어온 김감독이 제작한 ‘조금만 더 가까이’는 다섯 커플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영화다.

‘폴라로이드 작동법’을 통해 관객들과 처음 만났던 정유미가 이번 작품에서 다시 김종관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최근 드라마 ‘로드 넘버원’을 찍은 윤계상, 뮤지컬 배우 윤희석, 인디음악계의 헤로인 요조 등이 함께 출연한다.

〈공유〉

〈임수정〉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멜로 영화 ‘두여자’도 관객들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아내가 결혼했다’를 통해 결혼에 관한 남다른 시각을 전한 정윤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두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를 알게 되고 그 여자를 미워하면서도 궁금해 하는 여자의 심리를 담아낸 작품이다.

소영으로 분해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신은경과 지석 역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한 정준호, 영화 ‘파주’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던 심이영이 수지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 구상과 구상이 불보다 더 사랑하는 그의 아내 순영, 그리고 순영을 사랑하는 또 한 명의 소방관 석우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린 정통 멜로물이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출연중인 송창의가 주연을 맡았으며 신지혜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추석 시즌을 넘어 절찬리에 상영중인 ‘시라노 : 연애 조작단’은 연애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완벽한 각본을 짜, 연애 숙맥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다.

‘광식이 동생 광태’의 김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엄태웅·이민정·최 다니엘·박신혜가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